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 6:9-10)

Your Kingdom Come

(Matt. 6:9-10)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와 사역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핵심도, 구약의 메시지, 그리고 사도들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그 개념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들이며, 영토는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core of all messages and mission from Jesus Christ is ‘The Kingdom of God.’ The core of the Lord’s Prayer that was taught by Jesus, the message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message of the Apostle Paul was to focus on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that Jesus speaks of refers to ‘Basileia’ in Greek. The concept of kingdom consists of three different words: territory, sovereignty, and the people. The sovereign power of the Kingdom of God is God Himself, its people are all of us, and at any place where the territory is, it means the time and space where the sovereign power is received and obeyed.

1.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세상 나라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질서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모두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과 질서는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편지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성령충만한 자들이라고 하고,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갈 5:23-24).

2.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알의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마 4:30-31).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점진성에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유용성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이고,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는 유용한 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시작,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작은 변화에 주목하며, 작은 일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작은 것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자라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작은 마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나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지금, 바로 이 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눈앞의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Kingdom of God and of the world

The Kingdom of God does not belong to the world and it completely differs from the concept of the world. And the order of the Kingdom of God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world. All of the nation’s people in the world live their lives with the egocentric value and order, but the center and order of the Kingdom of God is only one, God.

The life motive of the people in the Kingdom of God is a love for God. That love signifies the result of obedience to God’s word. And that obedience spreads God’s nature, Jesus Christ’s fragrance, and the letter of the gospel into the world. Those who obey in this way are full of Spirit, and they live the nine fruits of Spirit (Gal. 5:23-24).

2. The Kingdom of God grows larger from the small beginning

Jesus compares the Kingdom of God to a mustard seed (Mark 4:30-31). Jesus says that though the mustard seed is the smallest that can hardly be seen by people, eventually, it becomes just like a large tree.

The trait of the Kingdom of God is not symbolized by the size but by the vital power. Though the smallest mustard seed is barely visible, it contains the vital power.

Moreover, the trait of the Kingdom of God is gradualness. When a mustard seed is dropped into the soil, it can grow as a tree large enough to accommodate birds. However, it cannot be a big tree in a day. It takes a lot of time to sprout, to blossom, and to be in fruit.

The core of the Kingdom of God has usability. After a mustard seed drops into the soil and it grows a large tree enough to accommodate birds, it will be a useful tree for a tired person to give a cool rest area to relax.

My beloved Christians!

We never ignore a small beginning and change. We must be the people who consider a small thing to be important, and pay attention to a small change, and encourage a small work.

The Kingdom of God begins like a small thing and grows bigger and bigger, and eventually, becomes a large tree like this. Our Jesus Christ was born in a manger that was not visible in a small town and came to us as the greatest light and power to save the world.

The Kingdom of God has a real origin and is of a real hope for us. And when we pray, it comes to us. That’s why its people are not governed by the environment before their eyes, but a living hope in the kingdom reality. Whenever we pray, ‘Your Kingdom comes’, God dwells with us and the Kingdom of God comes to us. The Kingdom of God like a mustard seed clearly becomes a great tree. By praying every day with desire,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look at the Kingdom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9월 3일(월)-11월 5일(월) 10주간 /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

제4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전도와 교회성장"을 주제로 9월 3일(월)부터 11월 5일(월)까지 10주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린다. 1교시(오후2시-3시30분)는 김정우 교수의 창세기 강해(12-50), 2교시는 주제에 따라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학기 2교시 강의는 전도특강이므로 70인전도대 및 일반 성도들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목회발전과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	월/일	주 제	강 사
1	9/3	파워관계 전도법	송기배 목사 (가정사랑학교 대표)
2	9/10	아파트 전도법	김진아 목사 (구하리교회)
3	9/17	진돗개 전도법	박병선 집사 (순천순동교회)
4	9/24	해피데이 전도법	김한욱 목사 (새안양교회)
5	10/1	휴 강 (국군의 날)	
6	10/8	빌립 전도법	변은미 전도사 (빌립 전도협회 대표)
7	10/15	전도? 전도! 전도...	김문훈 목사 (포도원교회)
8	10/22	WEA(세계복음주의연맹)-WCC(세계교회협의회) Dialogue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원로,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9	10/29	오이코스 전도법	이상만 교수 (오이코스코리아 대표)
10	11/5	에심 전도법	김기남 목사 (부천에심교회)



2012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 3일(월) - 11월 11일(주일) (10주간)

2012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3일(월)에 개강하여 11월11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성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되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 일정은 하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2012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강	좌	요일 및 시간	담 당	장 소
성경 과목 (10주)	로마서 반	오전 10:00-11:00	서명철 목사	602호
	마가복음 반	목, 오전 6:00-7:00	박진아 목사	602호
	느헤미야 반	금, 오전 6:00-7:00	정수길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10주)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금, 오후 7:00- 8:00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1:00	한상은 목사	601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꼬꼬마 가배학교		목, 오전 10:00- 12:00	최인에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수, 오후 8:30-10:00	Steven Martinlich 목사	603호

서울음악교실(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9/9 - 11/11)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 (5주간)	주일, 오후 12:30-1:30 (9/9 - 10/14)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중급반	주일, 오후12:50-1:50(초급반) 주일, 오후 4:00-4:50(중급반) (9/2 - 12/9)	임규현 목사	606호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3독 - 14교구 서순희 권사
- 2독 - 3교구 김수정 집사, 9교구 송옥혜 권사
- 1독 - 1교구 서경애 권사, 4교구 박복순 성도, 4교구 이영희1 권사, 7교구 김영례 권사, 9교구 박희서 집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1교구 김양숙 권사, 14교구 곽태수 집사, 14교구 김우숙 권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0]

(문 57) 민수가 31장에서 미디안의 멸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답) :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브을에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중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여인이 죽임을 당하고 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민 25:1-9).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한 브을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염병을 일으키시어 2만 4천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케 한 미디안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민 31장은 이같은 형벌을 명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사람들이 내린 벌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만 이천 명의 군대를 보내어 여호와와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져 마침내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바알브을에서 있었던 배신 행위의 선동자였던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혼한 여인과 간음한 여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도록 (15-18절) 모세가 특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살려두되 그들은 이스라엘 집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가족은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이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며 전쟁에 나갔던 이들은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26-28절). 또 그 중 이스라엘 회중이 받은 절반 중 50분의 일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전리품 중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금의 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겔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없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같은 확신은 마치 몸속에서 퍼지고 있는 암세포를 수술해 내듯이 고통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살을 베어내는 회생을 감수해야 하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주 계속)



이학명 집사(인도네시아 단기선교단 총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저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단 37명은 8월2일(목) 아침 9시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10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8월 11일 (토) 밤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사역 팀은 의료팀, 미용팀, 교육팀, 후생팀으로 운영되었고, 의료팀과는 8월 6일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준비 그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이슬람 세력이 강성한 데르모 마을에서 시작하였는데 허승일 전도사님이 이끄는

교육팀의 프로그램은 그곳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버림 받은 고아들과 장애인들과의 사역은 크나큰 감동이었습니다. 모슬렘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느 회교국처럼 타종교에 대한 강한 배타적 자세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우리 사역팀은 용감하게 그곳 말로 된 찬송을 부르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용팀은 미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화장실도 교대로 가야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서 빗질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대학부의 한 자매는 아이들의 머리 속에 서캐가 가득하고 이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자기 머리와 몸이 가려운 것 같아 무섭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의료팀이 합류하여 미용, 교육, 의료의 삼박자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의료팀은 바뚜시의 중 고마을부터 브리타니마을 라왕시 소재의 양로원과 장애인 복지관, 다시 데르모 마을로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라 4일 내내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료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은 끝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문건 목사님은 진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일일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단은 1100여명의 사람들에게 의료와 미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강성 모슬렘신도의 라마단 기간에 3가정 6명과 (일가족14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개종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를 시작으로 하루 5번씩 확성기로 코오란 소리와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알라신은 위대하다' 라는 표어들은 머지 않아 각종 기독교 부흥회를 알리는 현수막으로 바뀔 수 있을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단기선교기간동안 개종한 성도들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보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박경정 집사(의료선교회회장)

수개월간 기도로 준비하였던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의료팀 9명은 8월 6일 새벽 5시에 박진아 선교 담당 목사님과 신용식 장로님(선교위원장)을 비롯한 성도들의 배움을 받으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약품과 의료기구 때문에 정밀 검색을 받았지만 무사히 모든 짐을 비행기에 싣고 출발하였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비자를 발급받고,

의약품의 통관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긴장하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서광종 선교사님이 짐 찾는 데까지 들어오셔서 안내를 해주셔서 아무 탈 없이 세관을 통과하였습니다.

첫 날부터 보건당국에서 의사를 과견하여 우리 팀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으나, 마을의 지도자들이 잘 중재하여 약 두 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의사가 철수한 후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이 의료선교회로는 네 번째 단기선교인데, 의과대학생이 처음으로 다섯 명이나 동참하여 선배들을 도와가며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접수를 맡아주시는 이영재 집사님, 안내를 맡아 질서를 잘 유지해준 대학생 단원들, 매년 약국에서 수고하는 주영, 선우와 처음 참가한 주형 학생,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통역으로 봉사해주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권사님, 마지막으로 기도의 약을 처방하신 목사님,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동역하여 4일간 연인원 1,000 여명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첫 날, 우리 팀이 가장 힘들게 사역했던 마을의 무슬림 여섯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에도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순종하니



안과 진료중인 의료선교단

커다란 열매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단기선교였습니다. 할렐루야!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환자들에게 축복기도하는 유문건 목사



최광성 집사 (바자 준비위원의 차장)

사랑 나눔 운동은 사회공헌적 캠페인이며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운동입니다. 2012 서울교회 바자가 사랑과 섬김, 나눔과 감동의 축제란 주제로 9월 20-21일에 열리게 됩니다. 3년째 계속되는 사랑나눔 A+ 운동이 8월 26일부터 4주간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로 바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바자 기간에 모이는 모금액은 생명의 우물파기, 미자립 교회돕기, 이웃사랑실천, 탈북난민 돕기, 아가페타운을 지원하는 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1. 1% 나눔운동은 행복한 기부 운동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바자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나눔과 기부 운동에 참여하여 유품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4주간 수입중 일부를 약정하여 기부하는 운동입니다.
2. 10% 절제운동은 청소년의 핸드폰 사용, 영화관람, 가족들의 외식비, 휴가비 등을 절약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이 운동은 건전한 기독교 문화 생활을 유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3. 사랑의 온도계는 만원의 정성으로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함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나눔은 나눌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4. 기증품 및 헌웃은 8월 26일부터 교회1층 로비에 서 접수 받습니다. 헌웃은 세탁하여 기증하여 주시고, 교구를 표시하여 기증자 이름과 원매가를 알려주세요.

1% 나눔운동과 10% 절약운동에 참여할 분들은 주보 삽지로 나가는 사랑나눔 약정서에 동참할 부분을 기재하여 사무국 또는 현금함에 제출하여 주시고, 약속한 기간 동안 시행하시면 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 (부장: 오정수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백경화집사의 지휘로 "시편43편 (Felix. Mendelssohn곡)", "Abendlied zu Gott [저녁 감사 기도] (Joseph Haydn 곡)", "치체스터 시편 (Leonard Bernstein곡)"의 세곡을 연주하며,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조현정 선생,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 그리고 타악기에 윤중현 선생(임마누엘찬양대 팀파니스트)와 안평강성도가 함께 연주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9일(주) 약수교회 2부, 3부예배 설교한다. 21일(화) 탈북난민캠프추진 발대식 및 심포지움을 갖는다. 24일(금)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한다.
- 개업 : 3교구 박형준 집사 조수현 집사 가정 '교동전선생' 을지로센터점 T) 02) 777-8665
- 주간식당봉사: 한나전도회(8.19) 리브가전도회(8.26)
- 금주의 식사: 서준섭집사 유지현집사 가정 (법사에 감사하며) 교회제공

12기 꼬꼬마 가베학교에 초대합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꼬꼬마 가베학교는 2006년부터 어머니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 마리아 학교로 시작해 2009년부터 꼬꼬마 가베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2기 꼬꼬마 가베학교는 9월6일 목요일에 개강하여 6주간 진행을 하고 10월11일 목요일에 종강을 합니다. 꼬꼬마 가베학교에서는 유아들에게 가베교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베는 유아들의 자발성, 창의력, 사고 발달 등 아이들의 기초능력을 이끌어주는 교구입니다. 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아울러 꼬꼬마 가베학교를 위해 봉사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일시: 9월 6일(목)~10월 11일(목)까지 6주 과정 매주(목)오전10:00-12:00
- 2) 대상: 24개월~5세 유아1명 + 보호자1인 (사무국 선착순 접수 25팀)
- 3) 참가비: 20,000원
- 4) 접수: 8월19일 주일부터 706호 입구에서 접수
- 5) 장소: 매주 목요일 706호
- 6) 12기 주제: 기본 생활습관
- 7) 교육문의: 최인애전도사(가베지도사 010-6252-6427)

나눔의 집 확장 운영

나눔의 집은 그간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나날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1권사회는 권사회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특히 나눔의 집 운영에 주력하여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농촌 목회자들에게 크게 유익을 드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내왕해주시 분께서 더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므로 이왕이면 나눔의 집이 만남의 공간으로도 활용하면 좋을 듯 하여 장소를 확장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나눔의 집은 수요1부 예배 후,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려있으니 성도여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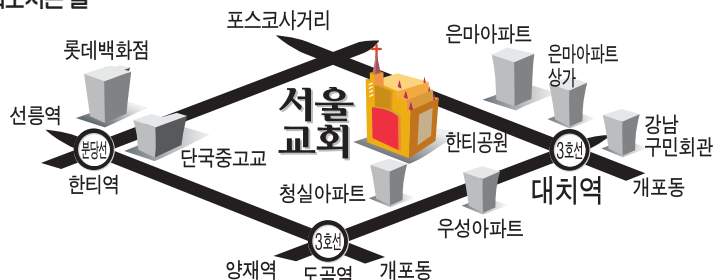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2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서울교회 되도록
2. 개혁을 맞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캠퍼스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3.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더욱 많은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교회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